

『그리운 너에게』

416 가족협의회, 416 기억저장소, 후타마나스, 2018

정은진*

사회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건이나 재난에서 기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기록을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집단의 상처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기록을 수집하고, 기억과 진실을 드러내어 깊이 반성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건의 상처를 마주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다. 상처의 공유는 같은 경험과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처를 위로하여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기록은 2014년 이후 여러 유형의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사실의 기록 또는 기록의 수집 형태이거나 문학의 형태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피해자나 유가족이 직접 남긴 기록을 발간한 형태이다.

시를 비롯한 문학으로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한 책은 『눈먼 자들의 국가』(2014),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2017), 『엄마. 나야.』(2015), 『세월호 이야기』(2014),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2014) 등의 책들이 출간되

* 전남대학교 기록연구소.

었다.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2015)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심리학자가 제안하는 책으로 사회 전체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진실규명과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의 원인, 발생과정, 재판,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한 성격의 책들이 있는데 『세월호참사 팩트체크』(2017), 『세월호, 그날의 기록』(2016), 『세월호를 기록하다』(2015),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2014)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상처에 가장 맞닿아 있는 기록은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나 유가족이 직접 생산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희생자인 딸이 남긴 습작소설과 시, 편지 등을 묶어 책으로 발간한 『사월의 편지』(2015), 세월호 유가족의 구술기록이라 할 수 있는 『금요일엔 돌아오렴』(2015)이 그것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이 단원고 희생학생 유가족 열세명을 인터뷰한 2014년 240일의 기록이다. 이 책에 드러난 유가족의 경험과 상처는 같은 사건을 공유한 사회를 향해 아픔에 대한 공감과 진실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소개하는 책, 『그리운 너에게』(2018)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책 중 가장 사건의 상처를 바로 마주하는 기록처럼 느껴진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겨우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기획하고 쓴 첫 번째 책’의 소개처럼 책에는 세월호 유가족이면서 엄마이거나 아빠의 육필 편지 110편이 들어있다. ‘세상을 떠나보낸 자녀에게 보내는 부모의 편지’는 부모의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개인적인 기록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희생자 아이들의 이름이 오롯이 담긴 이 편지는 전적으로 사적인 기록이 아님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 4년 전 우리 사회에 공유된 기억과 경험은 유가족의 사적인 기록을 우리 사회의 공적인 기록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책을 펼쳐 유가족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그 안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보내버린 아이를 향한 그리움,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그 날과 그 전날들에 대한 후회, 살아있음으로 인한 죄책감, 아직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진실, 많은 어려움에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사건 이후 살아나가고 있는 가족의 근황 등과 같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나 사건 이후의 일상생활과 감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편지에 표현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앞으로의 생활을 더욱 잘하리라는 다짐이다.

사건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는 이 편지들은 쓴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에게 아픔이다. 그러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단순히 사건의 발생이나 과정, 결과 등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이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의 몫이지만 이 책에서 처럼 상처가 있는 기억을 남긴 기록에 의미를 두어야 할 점은, 이 책을 읽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 기억에 공감하고 상처를 가진 이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 편지를 시작으로 유가족 삶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생산되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기억이 정리되고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기록은 또한 우리의 기억과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읽고 공유하여, 상처입은 모두가 공감하고 위로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조금 더 나은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